기획 연재

孝와 烈에 관한 瞑想 ⑤⑧

權 五 焄
本紙편집인

139 혜소위제嵇紹衛帝

중국 삼국시대 뒤의 진晋나라 때 이야기이다. 태제太弟[황제의 아우] 사마옹司馬顒의 참람되고 사치함이 날로 심하여 중망衆望을 크게 잃으니 사공司空인 동해왕東海王 사마월司馬越 등이 모의하여 토벌하고자 혜제惠帝를 받들어 북쪽으로 원정遠征하였다. 그러면서 전 시중侍中 혜소嵇紹를 부르니 혜소가 황제의 행재소行在所[제왕이 이동할 때 머무는 궁궐]로 나아갔다. 시중 진준秦準이 혜소를 보고 '경에게 좋은 말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혜소가 정색하고 '신자臣子가 승여乘輿[임금의 수레]를 호위扈衛함에 사생死生을 걸고 가는 것인데 좋은 말은 해서 무엇하겠소' 하고 반문하였다.

사마영이 석초石超를 보내 군사 5만으로 거전拒戰케 하니 석초의 군사가 문득 이르렀다. 황제의 승여가 탕음湯陰에서 패전을 거듭하여 황제가 뺨을 다치고 화살을 세 대나 맞았는데 백관百官과 시어侍御가 모두 흩어져 달아나 보이지 않았다. 혜소가 조복朝服을 입은 채로 말에서 내려 황제의 연輦으로 올라가서는 몸으로 황제를 호위하니 적병이 혜소를 끌어내려서 원문轅門[수레의 끌채를 마주 세워 문처럼 만든 병영] 안에서 찌르고 찍었다. 황제가 '충신이다. 죽이지 말라' 하니 병사가 대답하기를 '태제의 명을 받들어 오직 폐하 일인만을 범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고는 마침내 혜소를 살해하니 그 피가 흩뿌려 황제의 옷을 적셨다. 이윽고 석초가 황제를 모시고 자기 병영에 가서는 좌우가 황제의 옷을 빨게 하고자 하니 황제가 '혜시중嵇侍中의 피다. 빨지 말라' 하였다.

혜소嵇紹는 진晋나라 질銍 땅 사람으로 자가 연조延祖이고 종회鍾會라는 권신의 참소로 억울하게 죽은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 혜강嵇康의 아들로 진晋의 무제武帝 때 비서랑秘書郞이 되고 조왕趙王 사마륜司馬倫이 혜제惠帝의 위를 찬탈해서는 그를 시중侍中으로 서임署任하였다. 그리고 혜제惠帝가 복위해서도 그를 시중으로 유임시켰다. 혜제의 영흥永興 초년에 혜제의 아우 하간왕河間王 사마옹司馬顒 등이 거병擧兵하자 황제를 따라가 탕음湯陰에서 황제를 몸으로 호위하다 죽었다. 충목공忠穆公의 시호諡號를 받았고 혜시중혈嵇侍中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충신의 피를 뜻한다.

태제太弟 사마옹司馬顒은 자가 문재文載이고 벼슬은 사도司徒로서 하간왕河間王에 봉해지고, 사마월司馬越은 태泰의 둘째 아들로 자는 원초元超이고 벼슬은 승상丞相으로 동해왕東海王에 봉해졌으며 효헌孝獻의 시호를 받았다.

혜소위제嵇紹衛帝는 혜소가 황제를 호위했다는 뜻이고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숙봉천위토란신肅奉天威討亂臣 : 천자의 위엄 엄숙히 받들어 난신을 토벌함에

긍론생사고준순肯論生死故逡巡 : 즐겨 생사를 논해 머뭇거려 되겠는가

탕음패적군료산蕩陰敗績群僚散 : 탕음에서 거듭 패하자 신료의 무리 흩어졌는데

독피조의위제신獨被朝衣衛帝身 : 홀로 조복을 입고 황제의 몸 호위했네

살신종시요성인殺身終是要成仁 : 몸을 죽임은 끝내 인을 이루기 위함이요

천고충정견일인千古忠貞見一人 : 천고의 곧은 충성 한 사람에게 보는데

혈천제의잉물완血濺帝衣仍勿浣 : 피 튀긴 황제의 옷 빨지 못하게 하니

안도수불위산신按圖誰不爲酸辛 : 이를 실마리로 누군들 신산을 마다 하리오.

140 길가세충吉家世忠

유요劉曜가 서울 장안長安을 함락하니 진晋나라 임금 민제愍帝는 양거羊車[궁중에서 쓰는 작고 곱게 꾸민 수레]를 타고 육단肉袒[웃통을 벗어 상체를 드러내 복종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와 항복하니 뭇 신하가 수레를 더위잡고 소리내 울었다. 황제 또한 비통함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니 어사중승御史中丞 길랑吉朗이 탄식하기를 '내 지혜로 능히 모사謀事를 하지 못하고 용기로 능히 죽지 못했으니 어찌 임금과 신하로서 서로 좇아 북면北面[신하가 되어 임금을 향함]하여 오랑캐를 섬길 수 있으리오' 하고 곧 자살하였다.

그 손자 길읍吉挹은 진나라 효무제孝武帝 초기에 위흥魏興의 태수太守가 되었는데 진秦의 장수 위종韋鍾이 위흥을 공격해왔다. 손읍이 누차 그 예봉銳鋒을 꺾었으나 뒤에 그 무리가 계속 이르자 손읍의 힘으로 항적抗敵할 수가 없어 성이 함락되려 함에 칼을 뽑아 자살하려 하였다. 그 우인友人이 말리면서 '또한 살아 있어서 다른 계책을 펼쳐 보고 그 계책이 서지 않거든 그때 가서 죽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나 손읍이 듣지 않으므로 우인이 핍박하여 그 칼을 빼앗았다. 그때 마침 진나라 사람들이 이르러 붙잡히니 손읍은 입을 다물고 말을 않고 먹지도 않다가 죽었다. 그리하여 조명詔命으로 익주자사益州刺史에 추증追贈되었다.

유요劉曜는 중국 전조前趙 사람으로 자는 영명永明이고 유연劉淵이라는 사람의 족자族子로서 어려서 유연에게 양육되었다. 군사와 세력을 크게 얻어 진晋의 서울 장안長安을 점령하여 천자天子가 되고 국호國號를 조趙로 고쳤으나 재위在位 13년에 석륵石勒에게 살해되어 망했다. 민제愍帝는 진晋의 황제 사마업司馬鄴으로 오효왕吳孝王 사마안司馬晏의 아들이며 자는 언기彦旗인데 회제懷帝가 죽자 가필賈疋에게 옹립되어 즉위했는데 재위 4년 만에 시해되었다.

길랑吉朗은 진晋나라 연작蓮勺 사람이고 그 손자 길읍吉挹은 자字가 조충祖冲으로 효무제 초에 부견苻堅의 침공을 방어하여 원외산기시랑員外散騎侍郞이 되었고 뒤에 그 부견의 장수 위종韋鍾에게 성을 빼앗기자 자결하게 되었다.

제목 길가세충吉家世忠은 길씨네 집이 대를 이어 충성했다는 말이고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만승항호국보위萬乘降胡國步危 : 천자가 오랑캐에 항복해 나라가 위태로워

군신호읍한난지君臣號泣恨難支 : 뭇 신하 소리내 울어도 지탱키 어려워 한인데

종무지용회천지縱無智勇回天地 : 비록 천지를 회복할 지혜와 용기는 없으나

하인상장사적위何忍相將事賊爲 : 어찌 장상으로 도적을 섬길 수 있으리오

상독진서충의전嘗讀晋書忠義傳 : 일찍이 진서의 충의전을 읽으면

길가전세독초군吉家傳世獨超群 : 길씨 집 대를 이은 것 홀로 무리를 초월하니

경생불굴손종조輕生不屈孫從祖 : 목숨 던져 굴하지 않음 손자가 조부를 좇고

포증수우환유문褒贈殊尤煥有文 : 포증도 더욱 유달라 문채가 빛나네.

141 변문충효卞門忠孝

중국 진晋나라 때 이야기이다. 소준蘇峻이 군사를 일으켜 모반하여 고숙姑孰을 함락하고 횡강橫江을 건너오니 관군이 거듭 패하였다. 성제成帝가 조명詔命으로 상서령尙書令 변곤卞壼을 대형동제군도독大桁東諸軍都督을 삼아 이를 평정케 하였다. 그리하여 서릉西陵에서 소준과 싸워 대패하였다. 소준이 청계책靑溪柵을 공격하니 변곤이 또 맞아 격전했는데 소준이 바람을 이용해 불을 지르자 대성臺省[정부의 상서성尙書省]의 여러 군영軍營이 모두 소진燒盡되었다. 변곤은 등에 악창이 나서 새로 치유하였으나 종기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인데 힘을 다해 고전苦戰하다 죽었다.

그의 두 아들 변진卞眕 변우卞盱가 따라갔는데 또한 적에게 나가 싸우다 죽었다.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의 시신을 어루만지면서 울기를 '아비가 충신이 되고 자식은 효자가 되었으니 대저 무엇이 한이리오' 하였다. 나라에서 변곤에게 시중侍中 표기장군驃騎將軍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의 벼슬을 추증하고 충정忠貞으로 시호諡號를 내리며 사당을 세워 태뢰太牢[소·양·돼지 세 가지 희생犧牲]로 제사지내게 하였다.

소준蘇峻은 진晋나라 액掖 땅 사람으로 자는 자고子高인데 젊어서 서생書生으로 재주와 학식이 있었다. 영가永嘉의 난[서진西晋 말 유총劉聰이 낙양洛陽을 함락하고 회제懷帝를 시해한 난리]이 일어났을 때 유민流民 수천가家를 규합하여 제 고을에 보루를 결구結構하니 원근에서 소준을 주군主君으로 추대하였다. 천자 원제元帝가 이를 듣고 회유하기 위해 안집장군安集將軍 벼슬을 주고 임루회내사臨累淮內史를 제수除授하였다. 왕돈王敦이 제멋대로 반역하자 소준이 무리를 거느리고 서울로 들어와 이를 대파大破하고는 관군장군冠軍將軍에 역양歷陽의 내사內史가 되었다. 성제成帝 때에는 그 위망威望이 점차 무저茂著해져서 정예한 군졸이 1만에 병기가 심히 정밀해서 조정에서 강외江外를 위임하였는데 소준이 몰래 다른 뜻을 품어 유량庾亮이 그를 대사농大司農으로 징소徵召하자 마침내 모반하였다. 관군과 싸워 빈번히 이기더니 급기야 궁성을 함락하고는 스스로 표기영군장군驃騎領軍將軍에 녹상서사錄尙書事가 되니 조정의 일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뒤에 황제를 석두石頭로 옮기니 온교溫嶠·유량庾亮·도간陶侃이 군사를 모아 토벌함에 따라 패사敗死하였다.

변곤卞壼은 수粹의 아들로 자는 망지望之이고 영가永嘉[진晋 효회제孝懷帝 연호 : 307~313] 연간에 저작랑著作郞이 되고 명제明帝 때 상서령尙書令이 되었다. 그의 사촌 변돈卞敦도 상서尙書에 익양후益陽侯가 된만큼 명문인데 제목 변문충효卞門忠孝는 성서成語가 되었으며 진서晋書에 변곤전卞壼傳이 실렸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강신발호제횡강强臣跋扈濟橫江 : 강신이 발호하여 횡강을 건너면서

누파대병범대방屢破臺兵犯大邦 : 거듭 관군을 깨뜨리고 큰 나라를 범하는데

신유옹저창미합新愈癰疽瘡未合 : 겨우 나은 등창에 종기 덜 아물었건만

경신고전사무쌍傾身苦戰死無雙 : 몸을 기울여 고전하되 죽음을 두려워 않네

일문충효양능전一門忠孝兩能全 : 한 집에서 충과 효 두 가지를 온전히 하니

이자현명숙비견二子賢名孰比肩 : 두 아들 어진 이름 누가 어깨를 겨누랴

증시포숭사태뢰贈諡褒崇祠大牢 : 시호를 주고 높이 포장하여 태뢰의 사당도 내리니

휘광청사지금전輝光靑史至今傳 : 청사에 빛나는 광휘 지금까지 전하네.

142 환이치사桓彝致死

소준蘇峻이 고숙姑孰을 습격해 함락하자 선성宣城의 내사內史 환이桓彝가 군사를 일으켜 조정으로 나가고자 하니 장사長史 패혜稗惠가 고을의 군사가 적고 약하며 산민山民이 쉽게 동요한다 하여 안갑案甲[군대를 주둔시키고 움직이지 않음]으로 기다리는 게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환이가 안색을 변하며 말하기를 '그 임금에게 무례한 것이 매나 새매가 참새를 쫓는 것과 같고 지금 사직社稷이 위태로이 핍박받는데 의리로써 안연히 있을 수가 없다' 하고 마침내 패혜가 무호蕪湖로 진군케 하였다.

소준의 장수 한황韓晃이 패혜를 격파하고 인하여 선성宣城을 공격하니 환이는 물러나 광덕廣德을 안보하고 있다가 곧 경성京城을 지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경현涇縣으로 나아가 둔쳤다. 그러자 패혜가 또 권유하기를 '소준과 사자使者를 교통交通하여 갈마들어 이르는 화를 늦추시라' 하였다. 이에 환이가 말하기를 '내가 국가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의리는 치사致死함에 있거늘 어찌 부끄러움을 참고 역신逆臣과 더불어 문안을 통하리오.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운명이다' 하고 장군 유종兪縱을 보내 난석蘭石을 지키게 하였다.

소준의 장수 한황이 난석을 공격하여 패색이 짙으니 좌우가 유종에게 퇴군할 것을 권했다. 그러자 유종이 '내가 황후桓侯[환이]의 은혜를 후히 받았으

15면으로계속